



문화가 쏘다

음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는 4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운영하는 '2026 서귀포시민 음악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타악기, 성악양상블(합창)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4월 6일까지 신청서를 받은 뒤 4월 8일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발하게 된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참고.

서귀포시는 또한 4월 2일까지 '상반기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 신청도 접수(신청순 13곳)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가수, 밴드 등 전문 공연팀이 마을, 경로당, 학교, 복지 시설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음악 공연이다.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 모집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제주지부가 2026년 신입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회원 가입 신청은 어린이·청소년 책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입 회원이 되려면 기본 강의를 듣고 정회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주지회는 4월 1일 오전 10~낮 12시 제주문화관 3층 세미나실, 서귀포지회는 4월 18일 오후 2~4시 서귀포도서관 2층에서 강의가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지부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jejubookchild) 참고.

양벚꽃길 책 나눔 행사

사단법인 제주문화포럼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전농로 양벚꽃축제 기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책 나눔 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제주문화포럼(제주시 전농로 107) 사무실 앞마당에서 진행된다. 제주문화포럼의 '책을 사랑하는 모임' 문화교실 참여 회원들이 기증한 소설과 인문 교양서를 시민들에게 나누는 자리로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기획됐다. 진선희기자

영혼 바친 제주의 기록 박물관으로

사진가 김영갑 필름 등 두모약 소장 약 10만 점 국립제주박물관에 기증 6월엔 특별전 개최 예정

1980년대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사진 작업을 하다 이 섬에 매혹되어 동지를 틀었던 김영갑(1957~2005). 영혼과 열정을 바쳐 한라산, 오름, 바다 등을 카메라에 담았던 사진가 김영갑의 작품이 국립제주박물관으로 향한다.

국립제주박물관은 25일 박물관에서 김영갑갤러리두모약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소장품 기증식을 열었다. 2002년 옛 삼달국민학교에 문을 연 김영갑갤러리두모약이 고인의 작품을 국립제주박물관에 기증함에 따라 문화유산적 가치를 나누고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기증식에서 두모약 측은 김영갑 사진 작품과 필름 등 소장 자료 9만8542건, 9만8652점을 박물관에 이관하기로 했다. 박물관에서는 제주 자연을 기록한 대표적 사진가



25일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열린 김영갑갤러리두모약 소장품 기증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립제주박물관 제공

의 아카이브를 공공 기관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박물관은 기증작을 중심으로 오는 6월 특별전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 전시, 조사 연구, 콘텐츠 개발, 홍보 등에 힘을 모은다. 특히 김영갑갤러리두모약이 김영갑 작가의 창작 공간으로서 역사성과 현장성을 이어간다면 국립제주박물관은 공공 문화 시설로서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담당

하는 등 상호 협력하게 된다. 국립제주박물관 김동우 관장은 "이번 양해 각서 체결과 기증은 김영갑 작가의 작품 세계를 공공의 자산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김영갑갤러리두모약 이우근 이사장은 "작가의 작품과 기록이 공공 기관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4·3 시화에 담고 역사의 현장 찾는다

문학으로 제주 4·3을 말해온 문인들이 제주4·3 제78주년을 기념해 4월의 의미를 새기는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사)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제주작가회의)가 펼치는 '제주 사월 문학제'다. 이번 문학제는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고 해원과 상생의 정신을 문학으로 꽃피우기 위해 마련됐다. 4·3추념 시화전, 4·3문학기행, 4·3문학 심포지엄, 잃어버린 마을에서 부르는 평화의 노래(문학제)가 잇따른다. 시화전은 '말하지 못한 이름들 꽃술마다 맺혀...'란 이름을 달고 오는 28일 오전 11시 제주4·3평화기념관 진입로 야외 광장에서 개막

제주작가회의 '사월 문학제' 시화전·문학기행·심포지엄 한다. 도내의 문인 72명이 참여한 시화전으로 8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문학기행은 '사월의 문장을 찾아서'란 제목 아래 제주4·3평화재단과 함께 진행한다. 강연작가회의 회원, 전국 문학인, 전국 교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주요 배경으로 알려진 표선 지역의 4·3유적지 등을 찾는다. 3월 29일, 4월 25일, 4월 26일, 5월 10일 등 네 차례 운영된다. 심포지엄은 '해방기 제주항쟁과 문학'을 주제로 4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제주문화관에서 열린다. '조선문학가동맹과 제주단선반대항

쟁'(김재용 원광대 명예교수), "제주도우다"에 나타난 해방기 제주 통일독립항쟁'(김동운 제주대 교수), '제주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활동과 문학'(방선미 제주대 강사)을 발표하고 장이지 제주대 교수, 강덕환 시인, 조미경 소설가가 토론을 맡는다. 오는 9월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잃어버린 마을 종남마을에서 부르는 평화의 노래'가 예정되어 있다. 강봉수 회장은 "죽음을 다시 삶으로 걸어 올리는 평화와 생명 존중의 길,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한마당으로 나아가는 문학적 여정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유품 원고로 만나는 창작의 순간

유품문학관 내달부터 두 번째 '문인유품선' 원고지 위 문인 유품 문학의 향기 오롯이

유품문학관 내달부터 두 번째 '문인유품선' 원고지 위 문인 유품 문학의 향기 오롯이

유품 원고를 통해 창작의 순간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유품문학관.제주'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기획한 '문인유품선' 전시다. 4월 1일부터 진행되는 이 전시에는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내의 문인들의 유품 원고, 편지, 서화, 저작물 등을 선보인다. 원고지 한 칸 한 칸을 채운 문학인들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다.

제주 문인으로는 강중훈 시인과 박재형 동화 작가의 유품 원고, 강동원 시인의 편지, 문충성 시인의 습작 노트 등을 만날 수 있다. 1957년 양중해 시인이 결혼을 알리고 축하사를 부탁하며 전광용 소설가에게 띄운 편지도 공개된다.

한국문학사의 한자리를 차지하는 문인들의 자료도 있다. 계몽국의 한국문학가협회 입회 원서(1950년), 김춘수 시인의 '꽃'이 수록된 제1시집 '구

름과 장미'(1947년)의 유품 원고를 비롯해 모윤숙·박종화·서정주·신경림·이병기·이은상·최찬식 등의 유품 자료다. 박초 홍명희의 소설 '임거정' 제1권 의형제편(1939), 제3권 화적편 상(1939), 제4권 화적편 중(1940), 1948년 을유문화사 발행 의형제편 권1-3, 화적편 권1-2도 전시한다. 아동문학 분야에서는 강소천의 유품 '재미있는 싸움', 윤극영의 '반달' 시화 2점과 유품 원고, 윤석중의 유품 원고와 함께 색동회 관련 자료를 펼쳐 놓는다. 박재형 관장은 "작가의 진면목이 오롯이 담겨 있는 유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아니다"라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려해 보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2월 사립 문학관으로 문을 연 '유품문학관.제주'는 한라수목원 인근(1100로 3178, 지하 1층)에 있다. 관람(월~금요일 오전 10~오후 4시)은 사전 예약(휴대전화 문자 010-7681-8576)을 해야 한다. 다만 4월 1~4일에는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다. 진선희기자



4월부터 진행되는 문인유품선 포스터. 유품문학관.제주 제공

Advertisement for Jeju Travel Packages. Title: 전세기로 떠나는 편안한 해외여행. Features: 제주직항전세기 (Jeju Direct Flight). Destinations: 필리핀 마닐라 (4박5일), 중국 장가계 (3박5일), 몽골 (4박5일), 백두산 (연길/3박5일). Includes prices and contact info: T. 064)746-6900.